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7년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의학교육학과,¹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²
충북대학교 심리학과³

전우택¹ · 유시은² · 엄진섭³

A Seven-Year Panel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Life in South Korea

Woo-Taek Jeon, MD, PhD¹, Shi-Eun Yu, PhD² and Jin-Sup Eom, PhD³

¹Departments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²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Objectives North Korean defectors' comprehension of South Korean society and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in South Korea both symbolize their adaptation to their new society. The current report is an analysis of three serial panel studies of 2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South Korea in 2000.

Methods From February 2009 to March 2009, we interviewed 121 defectors face-to-fac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level had been relatively well-maintained,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culture and language had increased. However, their attitudes toward fellow North Korean defectors had worsene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government support for medical care was very low.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Communist Party membership, completion of military service, and current employment statu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creating North Korean defector self-help groups, strengthening the medical support system, developing programs tailored according to defectors' different backgrounds,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s, as well as increasing South Koreans' awareness of these North Koreans through a appropriate campaign, will be necessary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0;49:90-103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 North Korean refugees · North Korea · Korea unification, Adaptation · Perception · Satisfaction level.

Received April 22, 2009
Revised August 6, 2009
Accepted October 7, 2009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Taek Jeo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260 Seongsan-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2510
Fax +82-2-364-5450
E-mail wtjeon@yuhs.ac

서 론

Lin 등¹⁾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데는 3가지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차적으로는 새로운 주거 공간과 생활용품, 먹거리 등에 대한 물질적 적응을 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학교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며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의 공식적 사회 구조에 적응하여야 하며, 3차적으로는 기존 거주자들의 생각과 문화, 의식 등의 사회문화에 적응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적응 중에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회문화 적응은 가

장 본질적인 적응이며, 이것의 양상에 따라 그 이후 그들의 적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문화 적응은 특히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극단적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주체사상만을 신봉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소위 '시민의식'을 가질 기회가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남한에 들어와 적응하며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공식적 사회구조의 문제만이 아닌, 의

식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힘든 과제를 가지고 있다.²⁻⁶⁾

본 연구팀은 남한 사회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중에서도 3차 적응에 속하는 사회문화 적응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적응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간다는 점을 중시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 연구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 남한에 입국하여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년 기간 중 하나원에 들어와 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전원인 293명을 대상으로 2001년에 의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총 2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설문에 응하여 2001년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⁷⁾ 그리고 3년 뒤인 2004년에 그 2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2차 의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총 15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2차 조사에 응하였고 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⁸⁾ 본 연구는 동일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조사에 응답하였던 200명에 대해 추적한 결과, 121명이 3차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중 1, 2, 3차 조사에 모두 응하였던 북한이탈주민들은 106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도록 1, 2, 3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1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사회문화 적응 및 의식 변화 추이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한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여야 할 지까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방 법

대 상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는 2001년, 2004년, 2007년 3차에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106명이다. 3차 조사는 2007년 12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연구조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일 대 일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회당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106명 전원은 2001년 본 연구의 1차 조사에 참석할 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 응답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과 불편 사항,

연구 중도 포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본 연구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차 조사 및 2007년 본 3차 조사 연구에서도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단,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연락처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였으므로, 모든 동의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 조사에 응답함으로써 자신들의 동의를 확인하였다.

조사도구

본 3차 연구의 조사도구는 2001년과 2004년에 사용하였던 설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척도는 Jeon 등⁷⁾이 2001년 1차 조사에서 개발된 도구이다. 그 내용은 남한사회 인식과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경제사정과 전망,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치감,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 통일 후 전망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는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그렇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북한 학력, 노동당원 여부, 군복무 여부, 남한에서의 직장상태, 종교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조사 시기에 따른 의식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반복측정변량분석(one-way repeated measure ANOVA)과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 쌍 비교를 위해서는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이하 Fisher's LSD) 검증을 수행하였다. 조사 시기와 각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경우 단순 주효과분석(simple main effect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결 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2001년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2007년도 추적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2001년 전체 조사대상자(200명)의 인구·통계적 특징과 200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2001 Respondents (n=200)	Respondents in 2001 (n=106)	Respondents in 2004 (n=106)	Respondents in 2007 (n=106)
Gender	Males	117 (58.5)	62 (58.5)	62 (58.5)	62 (58.5)
	Females	83 (41.5)	44 (41.5)	44 (41.5)	44 (41.5)
Age	Below 30	66 (33.0)	38 (35.8)	21 (19.8)	10 (9.4)
	30-39	77 (38.5)	33 (31.1)	43 (40.6)	42 (39.6)
	40-49	35 (17.5)	20 (18.9)	22 (20.8)	30 (28.3)
	50 and above	22 (11.0)	15 (14.2)	20 (18.9)	24 (22.6)
Employment status	Permanent	49 (24.5)	28 (26.4)	26 (24.5)	37 (34.9)
	Temporary/Contract	19 (9.5)	11 (10.4)	24 (22.6)	19 (17.9)
	Self-employed	10 (5.0)	5 (4.7)	9 (8.5)	16 (15.1)
	Unemployed	122 (61.0)	62 (58.5)	47 (44.3)	34 (32.1)
Religion	Protestant	151 (75.5)	73 (68.9)	76 (71.7)	57 (53.8)
	Catholic	3 (1.5)	—	1 (0.9)	2 (1.9)
	Buddhism	2 (1.0)	—	—	1 (0.9)
	Others	1 (0.5)	—	—	—
	No religion	43 (21.5)	33 (31.1)	29 (27.4)	46 (43.4)
Education level in North Korea	High school	126 (63.0)	65 (61.3)	65 (61.3)	65 (61.3)
	2-year college	30 (15.0)	17 (16.0)	17 (16.0)	17 (16.0)
	4-year college	44 (22.0)	24 (22.6)	24 (22.6)	24 (22.6)
Communist party membership	Yes	57 (28.5)	36 (34.0)	36 (34.0)	36 (34.0)
	No	143 (71.5)	70 (66.0)	70 (66.0)	70 (66.0)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Yes	30 (28.3)	40 (37.7)	40 (37.7)	40 (37.7)
	No	76 (71.7)	66 (62.3)	66 (62.3)	66 (62.3)
Total		200 (100)	106 (100)	106 (100)	106 (100)

년도 추적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106명)의 인구·통계적 특징이 서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였다. 이는 추적조사에 중간탈락된 대상자들이 인구·통계적 특징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추적 연구에 응답한 106명은 성별, 연령, 취업 형태에 있어서는 1차 조사시 대상자 200명의 그것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패널 연구의 1차 및 3차 연구 대상자들은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6년 기간에 따른 전체적인 의식변화 양상

의식 문항별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106명이 2001년도와 2004년도, 2007년도에 응답한 의식 조사 문항의 평균점수에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반복측정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의 변화에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1, 2, 3차 조사에서 꾸준히 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항목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항목은

‘10. 젊은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와 33, 35, 41번 항목 등 총 4개 항목이 여기에 속하였다. 둘째,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2차에서 나타난 특징이 3차 조사시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즉 의식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유형이다. ‘14.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와 32번 항목 등 총 2개 항목이 여기에 속하였다. 셋째, 1, 2차 조사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정착한지 7년이 지난 시기인 3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소위 의식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 항목이다. ‘4. 남한 사회를 이해한다’, ‘42. 남북축구 시합을 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와 17, 23, 34, 43, 44번 항목 등 총 7개 항목이 여기에 속하였다. 북한에 대한 소속 정체감 등이 주로 여기에 속하여 그들의 북한에 대한 소속감 관련 의식 변화는 시간이 5~7년 정도 흐른 뒤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차에 비하여 2차에 큰 상승이 있는 후, 3차에서는 다시 유의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 항목들이 있었다. 즉 초기에 큰 변화가 있지만,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큰 변화를 다시 체험하는 변화가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인 것이다. ‘15.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만드는 큰 단체가 필요하다’, ‘16.

Table 2. Changes in the mean perception item score by survey time

Item	2001	2004	2007	F1)	F2)	F3)
1. I understand the South Korean language very well.	3.94 (1.03)	3.94 (1.04)	4.14 (0.96)	1.650	2.243	0.920
2. One can be successful on his/her own in South Korea.	4.22 (1.17)	4.25 (0.94)	4.48 (0.87)	2.430	3.281	1.063
3. Money seems to be the best in South Korea.	4.36 (0.89)	4.24 (0.87)	4.25 (0.86)	0.951	1.266	0.614
4. I understand the Korean society very well.	3.38 (1.09) ^a	3.43 (0.87) ^a	3.87 (0.85) ^b	12.113 [†]	18.668 [†]	4.324*
5. South Korean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1.90 (0.94)	2.03 (0.99)	1.85 (0.81)	1.242	0.208	2.027
6. I have a South Korean confidant.	3.15 (1.47) ^a	3.59 (1.10) ^b	3.38 (1.29) ^{ab}	4.623*	2.047	8.328 [†]
7. I have a confida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52 (1.43)	3.64 (1.17)	3.33 (1.43)	2.063	1.222	3.596
8. It is difficult to become friends with South Koreans.	3.36 (1.41)	3.23 (1.29)	3.27 (1.33)	0.340	0.280	0.413
9. It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South Koreans.	3.16 (1.35)	3.12 (1.13)	3.00 (1.32)	0.660	1.021	0.091
10.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young South Koreans.	3.41 (1.13) ^b	3.22 (1.14) ^{ab}	3.01 (1.14) ^b	4.998 [†]	8.119 [†]	0.010
11.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old South Koreans.	2.59 (0.97)	2.85 (0.98)	2.60 (1.02)	2.949	0.006	6.386*
12. I have been ignored and discriminated against in South Korea.	2.72 (1.28)	2.59 (1.21)	2.46 (1.17)	1.841	3.688	0.000
13. South Koreans prejudice makes it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get a job.	3.48 (1.25)	3.38 (1.20)	3.12 (1.28)	2.988	5.456*	0.424
14. North Korean defectors lack the will to be self-sufficient.	2.79 (1.33) ^a	3.20 (1.04) ^b	3.38 (1.13) ^b	9.675 [†]	17.284 [†]	1.092
15. North Korean defectors need a big organization.	3.06 (1.39) ^a	3.47 (1.18) ^b	2.93 (1.39) ^a	6.684 [†]	0.563	14.544 [†]
16. I will join North Koreans' organization.	3.04 (1.43) ^{ab}	3.19 (1.31) ^b	2.80 (1.46) ^a	3.167*	2.235	4.171*
17. I am having a financial difficulty.	3.31 (1.15) ^b	3.32 (1.18) ^b	2.95 (1.28) ^a	3.835*	4.585*	2.660
18. After five years, I would be better off.	4.11 (0.92)	3.96 (.96)	4.14 (0.89)	1.713	0.069	3.597
19. I am satisfied with the location of my current residence.	3.88 (1.14)	3.74 (1.01)	3.75 (1.04)	0.610	0.730	0.445
20.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house and room I live in.	3.63 (1.29)	3.39 (1.14)	3.49 (1.12)	1.260	0.799	1.846
21.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job.	3.75 (1.31)	3.83 (1.04)	3.70 (1.21)	0.360	0.080	0.897
22. I am satisfied with my income.	2.91 (1.33)	2.84 (1.08)	2.87 (1.16)	0.068	0.028	0.135
23. I am satisfied with my physical conditions.	3.67 (1.32) ^b	3.36 (1.16) ^a	3.27 (1.17) ^a	4.940 [†]	8.267 [†]	1.052
24. I am satisfied with my mental conditions.	3.61 (1.21)	3.60 (1.00)	3.66 (1.06)	0.114	0.128	0.098
25. I am satisfied with my leisure time.	3.20 (1.29)	3.02 (1.05)	2.99 (1.22)	1.306	1.954	0.453
26. I am satisfied with my family life.	3.94 (1.29)	3.91 (1.04)	4.03 (0.97)	0.301	0.266	0.351
27. I am satisfied with my life in South Korea.	3.43 (1.06)	3.60 (0.83)	3.71 (0.89)	2.909	4.708*	0.074
28. It was worth allowing my childing live in South Korea.	4.22 (1.17)	4.28 (0.81)	4.11 (1.10)	0.440	0.265	0.747
29. I am satisfied with how my children adapt to South Korean life.	4.09 (1.07)	4.02 (1.04)	4.04 (1.19)	0.074	0.049	0.119
30. I am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3.62 (1.28)	3.42 (1.16)	3.52 (1.13)	1.022	0.404	1.850
31. I am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education support	3.89 (1.17)	3.72 (1.01)	3.68 (1.08)	1.586	2.453	0.347
32. I am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medical support.	4.33 (0.93) ^b	3.73 (1.16) ^a	3.64 (1.23) ^a	12.986 [†]	20.251 [†]	4.430*
33. I am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3.01 (1.35) ^b	2.82 (1.11) ^{ab}	2.57 (1.20) ^a	4.602*	8.521 [†]	0.041
34. I am satisfied with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settlement.	3.57 (1.24) ^b	3.31 (1.10) ^b	2.84 (1.15) ^a	14.735 [†]	25.399 [†]	0.908
35. I am satisfied with overall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3.70 (1.13) ^c	3.36 (0.89) ^b	3.08 (1.09) ^a	12.837 [†]	18.649 [†]	0.157
36. I do not know how to spend spare time.	2.55 (1.28)	2.51 (1.06)	2.37 (1.18)	1.173	1.829	0.279
37. I do not know how to find jobs.	2.35 (1.25) ^b	2.40 (1.07) ^b	2.04 (1.06) ^a	4.140*	4.971*	3.207
38. Sometimes, I am confused about who am.	2.16 (1.24)	2.09 (1.10)	2.03 (1.06)	0.520	1.000	0.002
39. I ponder upon how to live righteously.	2.54 (1.44)	2.61 (1.24)	2.55 (1.34)	0.115	0.003	0.319
40. I proudly tell people that I am from North Korea.	3.41 (1.48)	3.60 (1.34)	3.49 (1.48)	0.614	0.198	1.110

Table 2. Continued

Item	2001	2004	2007	F ¹⁾	F ²⁾	F ³⁾
41. I feel bad when I hear criticism on North Korea.	2.52 (1.44) ^b	2.42 (1.20) ^{ab}	2.19 (1.18) ^a	3.261*	5.200*	0.358
42. I would support the North Korean team if there is a soccer match between the two Koreas.	2.95 (1.36) ^b	2.79 (1.27) ^b	2.53 (1.26) ^a	5.248 [†]	8.650 [†]	0.253
43. I would marry a North Korean defector.	2.90 (1.46) ^b	2.87 (1.38) ^b	2.39 (1.33) ^a	7.324 [‡]	11.098 [‡]	3.179
44. I want my children to marry with a North Korean defector.	2.68 (1.47) ^b	2.29 (1.24) ^b	1.93 (1.25) ^a	7.471 [‡]	13.159 [‡]	0.002
45. I want to be buried in North Korea after I die.	3.05 (1.63)	3.16 (1.46)	3.05 (1.48)	0.339	0.000	0.769
46. If the two Koreas are to be unified,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s would well understand each other.	2.91 (1.32)	2.82 (1.30)	2.57 (1.41)	2.577	4.725*	0.326

1) One way ANOVA, 2) Linear trend analysis, 3) Parabolic trend analysis.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3. Changes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survey time

	2001	2004	2007	F ¹⁾	F ²⁾	F ³⁾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20 (0.88)	3.23 (0.71)	3.27 (0.61)	0.300	0.536	0.009
2. Confusion in values	2.39 (1.03)	2.41 (0.83)	2.24 (0.81)	2.037	2.375	1.581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06 (1.32) ^a	3.34 (1.12) ^b	2.86 (1.35) ^a	6.011 [†]	1.718	11.829 [‡]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69 (0.88) ^c	3.39 (0.75) ^b	3.21 (0.85) ^a	13.398 [‡]	20.370 [‡]	0.665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13 (0.85)	3.10 (0.84)	2.99 (0.92)	1.582	2.273	0.448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85 (1.10) ^b	2.80 (0.92) ^b	2.61 (0.92) ^a	3.929*	5.555*	1.114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51 (1.03)	3.32 (0.79)	3.29 (0.91)	2.675	4.129*	0.820
8. Confidant	3.35 (1.16) ^a	3.60 (0.87) ^b	3.34 (0.94) ^a	4.018*	0.007	10.238 [‡]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76 (1.14)	3.57 (0.94)	3.63 (0.98)	1.195	0.900	1.624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66 (0.88) ^a	3.68 (0.77) ^a	4.02 (0.70) ^b	9.084 [‡]	13.137 [‡]	3.951*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09 (1.07) ^b	2.98 (0.97) ^{ab}	2.79 (0.99) ^a	3.347*	6.271*	0.143
12. Outlook for the future	4.17 (0.81) ^{ab}	4.10 (0.70) ^a	4.31 (0.59) ^b	3.107*	2.413	4.130*

1) One way ANOVA, 2) Linear trend analysis, 3) Parabolic trend analysis.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체에 참여하겠다' 등의 항목과 6번 항목 등 총 3개 항목이 여기에 속하였다. 다섯째, 1, 2, 3차 조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항목들이다. 총 46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여기에 속하였다.

의식 요인의 변화

46개 의식문항으로부터 추출한 12개 요인^{7,8)} 점수의 평균이 조사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원반복측정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 요인은 2001년도 1차 조사에 비하여 2004년도 2차 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증가하였지만, 2007년도 3차 조사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하강 포물선 추세가 뚜렷하였으며($F=11.829$, $p<.001$),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였다($F=20.370$, $p<.001$).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는 2007년도 3차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감소하였으며($F=3.929$, $p<.05$), 정신신체건강만족도는 시간이 지날

수록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다($F=4.129$, $p<.05$).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은 평균점수가 2004년도 2차 조사에서 증가하였다가 2007년도 3차 조사에서 다시 감소하는 포물선 추세가 있었다($F=10.238$, $p<.001$).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는 2004년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2007년도에 평균점수가 증가하였으며($F=9.084$, $p<.001$), 남한 사람들의 편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F=6.271$, $p<.05$). 미래에 대한 전망은 2007년도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107$, $p<.0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식 변화

성별에 따른 의식 변화

성별에 따라 의식 요인점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과 조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의식요인

Table 4.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survey time and gender

	Male (n=62)			F	Female (n=44)			F	F ¹⁾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19 (0.85)	3.17 (0.72)	3.23 (0.61)	—	3.21 (0.94)	3.31 (0.69)	3.33 (0.60)	—	0.191
2. Confusion in values	2.18 (0.98)	2.43 (0.86)	2.23 (0.85)	2.679	2.69 (1.03) ^b	2.38 (0.79) ^{ab}	2.24 (0.78) ^a	4.703*	5.554 [†]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11 (1.40)	3.31 (1.12)	2.92 (1.42)	—	2.98 (1.21)	3.40 (1.14)	2.77 (1.27)	—	0.439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59 (0.91)	3.46 (0.76)	3.14 (0.84)	—	3.84 (0.82)	3.30 (0.74)	3.31 (0.85)	—	2.814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11 (0.78)	3.16 (0.86)	3.02 (0.93)	—	3.17 (0.94)	3.03 (0.81)	2.94 (0.92)	—	0.617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72 (1.04)	2.77 (0.89)	2.58 (0.86)	—	3.03 (1.18)	2.84 (0.98)	2.65 (1.01)	—	1.177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67 (0.99)	3.43 (0.76)	3.38 (0.86)	—	3.28 (1.06)	3.17 (0.82)	3.16 (0.98)	—	0.363
8. Confidant	3.61 (1.08)	3.63 (0.91)	3.43 (0.98)	1.423	2.99 (1.19) ^a	3.55 (0.82) ^b	3.20 (0.87) ^a	5.674 [†]	3.573*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83 (1.18)	3.64 (0.93)	3.56 (1.05)	—	3.66 (1.08)	3.47 (0.95)	3.72 (0.87)	—	1.032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85 (0.84) ^{ab}	3.71 (0.74) ^a	4.01 (0.65) ^b	3.255*	3.38 (0.86) ^a	3.65 (0.82) ^a	4.03 (0.77) ^b	9.323 [†]	4.062*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03 (1.11)	3.11 (0.99)	2.81 (1.04)	—	3.17 (1.01)	2.80 (0.92)	2.75 (0.92)	—	1.750
12. Outlook for the future	4.24 (0.80)	4.20 (0.64)	4.36 (0.53)	—	4.07 (0.82)	3.97 (0.75)	4.24 (0.66)	—	0.236

1) Interaction effects gender and time.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 < .05$, † : $p < .01$, ‡ : $p < .001$

점수의 변화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분석의 목적이므로, 성별과 조사시기의 상호작용효과만을 해석하였다. 가치관의 혼란 및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 요인,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 등 총 3개의 요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각각 $F=5.554$, $p < .01$; $F=3.573$, $p < .05$; $F=4.062$, $p < .05$).

의식 변화에 있어 남녀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의식 요인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1차 조사시 자신들은 가치감의 혼란도 없고 남한 사회 및 언어에 대한 이해도 높고,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도 많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정착 초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차 조사 시 남성들은 가치감의 혼란도 더 많아지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오히려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도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식의 긍정적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년이 지난 3차 조사에서 이들은 가치감의 혼란이나 남한 사회 이해가 호전된 것으로 보였고,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은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매우 자기 방어적이고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들의 가치관 혼란과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적다는 것을 강하게 표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그러한 문제에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며, 그에 따라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연령에 따른 의식 변화

연령에 따라 의식 요인점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과 조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2001년도 1차 조사를 할 당시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의식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남한 생활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나이로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변화 추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연령대별 의식변화의 차이가 있는 의식요인은 경제생활 만족도($F=2.189$, $p < .05$), 정부지원정책 만족도($F=2.750$, $p < .05$), 정신신체건강 만

Table 5.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age in 2001

	-30 (n=38)				30-39 (n=33)				40-49 (n=20)				50- (n=15)				F	F ¹⁾
	2001		2007		2001		2007		2001		2007		2001		2007			
	F		F		F		F		F		F		F		F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40 (0.73)	3.30 (0.63)	3.42 (0.45)	3.23 (0.63)	3.12 (0.99)	3.20 (0.74)	3.23 (0.63)	-	3.28 (0.93)	2.94 (0.61)	3.01 (0.79)	1.073	2.73 (0.83) ^a	3.47 (0.90) ^b	3.32 (0.58) ^b	3.832*	2.189*	
2. Confusion in values	2.30 (1.01)	2.38 (0.67)	2.22 (0.55)	2.11 (0.85)	2.40 (0.93)	2.43 (0.94)	2.11 (0.85)	-	2.30 (1.06)	2.51 (0.83)	2.23 (0.87)	-	2.72 (1.25)	2.32 (1.00)	2.58 (1.15)	-	0.995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09 (1.26)	3.24 (1.02)	2.67 (1.10)	2.76 (1.37)	2.80 (1.29)	3.23 (1.14)	2.76 (1.37)	-	3.15 (1.45)	3.50 (1.10)	3.05 (1.59)	-	3.40 (1.39)	3.67 (1.37)	3.30 (1.56)	-	0.256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85 (0.85) ^b	3.33 (0.75) ^a	3.15 (0.73) ^a	3.27 (0.92) ^a	3.94 (0.85) ^b	3.58 (0.83) ^a	3.27 (0.92) ^a	7.606 [†]	3.47 (0.90)	3.18 (0.65)	3.18 (0.98)	1.135	3.06 (0.67)	3.46 (0.64)	3.29 (0.83)	1.246	2.750*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2.89 (0.63)	2.72 (0.65)	2.62 (0.72)	2.88 (0.82)	2.98 (0.80)	2.96 (0.81)	2.88 (0.82)	-	3.04 (0.94)	3.47 (0.64)	3.25 (1.06)	-	4.19 (0.46)	3.93 (0.85)	3.83 (0.82)	-	1.381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3.07 (1.02)	2.89 (0.88)	2.80 (0.73)	2.64 (1.04)	2.94 (1.23)	2.93 (0.93)	2.64 (1.04)	-	2.58 (1.10)	2.80 (0.82)	2.58 (0.87)	-	2.42 (0.92)	2.29 (1.07)	2.11 (1.06)	-	0.580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72 (0.85)	3.39 (0.77)	3.45 (0.81)	3.30 (0.81)	3.62 (1.00)	3.43 (0.69)	3.30 (0.81)	-	3.36 (1.17)	2.77 (0.54)	2.97 (1.11)	2.835	2.93 (1.20)	3.64 (1.03)	3.29 (1.05)	2.508	2.693*	
8. Confidant	3.83 (0.92) ^b	3.72 (0.80) ^{ab}	3.46 (0.93) ^a	3.26 (0.89) ^a	3.12 (1.26) ^a	3.68 (0.86) ^b	3.26 (0.89) ^a	4.529 [†]	3.29 (0.96)	3.26 (0.67)	3.26 (0.86)	0.008	2.70 (1.33) ^a	3.50 (1.21) ^b	3.30 (1.21) ^{ab}	3.872*	2.886 [†]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66 (1.07)	3.49 (0.90)	3.57 (0.81)	3.32 (0.97) ^a	3.97 (0.96) ^b	3.44 (0.99) ^a	3.32 (0.97) ^a	5.444 [†]	3.85 (1.30)	3.65 (0.71)	3.55 (1.17)	0.462	3.43 (1.41) ^a	3.93 (1.18) ^a	4.57 (0.46) ^b	4.543*	3.509 [†]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63 (0.79)	3.71 (0.72)	4.05 (0.67)	4.06 (0.63)	3.59 (0.96)	3.88 (0.70)	4.06 (0.63)	-	3.85 (0.69) ^b	3.25 (0.73) ^a	4.18 (0.71) ^b	10.336 [†]	3.60 (1.15)	3.77 (0.94)	3.63 (0.83)	0.209	2.915 [†]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01 (0.83)	2.95 (1.00)	2.74 (0.96)	2.59 (0.86)	3.17 (1.02)	2.98 (0.84)	2.59 (0.86)	-	2.95 (1.31)	2.71 (1.05)	2.87 (1.10)	-	3.30 (1.39)	3.37 (1.03)	3.23 (1.10)	-	0.668	
12. Outlook for the future	4.18 (0.78)	4.12 (0.64)	4.38 (0.56)	4.32 (0.58)	4.29 (0.79)	4.29 (0.56)	4.32 (0.58)	-	4.29 (0.56)	4.32 (0.58)	4.26 (0.69)	-	3.63 (0.99)	4.00 (0.87)	4.17 (0.56)	-	1.884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ime. ab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0.05, † : p<0.01, ‡ : p<0.001

족도($F=2.693$, $p<.05$),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F=2.886$, $p<.01$), 주거 만족도($F=3.509$, $p<.01$),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F=2.915$, $p<.01$) 등이 있었다.

2001년 1차 조사시 20대로 남한 생활을 시작하였던 젊은 세대들은 그 이후의 조사들을 통하여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북한이탈주민 간의 단결 필요성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빠르게 낮아져 가는 변화를 보이며,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하고,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의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신신체 만족도도 가장 높고, 터놓고 이야기 할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남한 사회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도 40대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차 조사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장 긍정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들이 남한에 들어온 것이 좀 더 일찍일수록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0대는 20대와 유형은 비슷하나 그 정도가 조금씩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주거 만족도의 하강이 가장 뚜렷하고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결과를 보인 것은 40대였다. 남한 생활을 40대에 시작한 이들은 50대에 시작한 사람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지만,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장 낮은 반면 남한 사회 및 언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북한에서 상당의 사회 경험을 가지고 남한에 들어 온 사람들이기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연령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는 특징을 보이는 연령대가 된 것이다.

50대 이상의 나이로 남한 생활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생활 만족도가 1차 조사에서 가장 낮게 시작하여 3차 조사에서는 상당히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가 되었다($F=3.832$, $p<.05$). 이들은 북한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가치관의 혼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대답하며,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결 의식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집단이기도 하다. 정부와 당의 전적인 지원에 의지하여 살아 온 경험 때문에 1차 조사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었지만, 3차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응답된 집단이었다. 즉 정착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어 그에 못 미친다고 보았을 때 만족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점차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놓고 이야기 할 상대도 1차 조사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이들 5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도 안정되게 사귀고, 남한 생활에 더 많은 만족을 느끼는 대표적 집단으로 보였다. 그러나 남한 사회와 언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였다.

북한 학력에 따른 의식 변화

북한 학력에 따라 의식 요인점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과 조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학력에 따라 고등중학교, 전문학교/단과대학, 대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미래에 대한 전망' 단 하나만 나타났다($F=3.248$, $p<.05$). 흥미로운 것은 단과대학/전문대학 출신들은 입국 초기에는 가장 낮은 미래를 전망하였으나,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대로 고등중학교 출신들은 초기에 가장 높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4년째가 되었을 때는 반대로 가장 낮은 기대치를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매우 높아지는 등의 큰 변화를 보였다. 즉 남한 사회에 대하여 이들은 매우 감정적인 예상과 반응을 보일 것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고등중학교 졸업 집단과 전문학교/단과대학 졸업 집단에서 조사 시기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3.990$, $p<.01$; $F=6.290$, $p<.01$),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은 7년이 지난 후 3차 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학력간 차이는 학력과 노동당원 출신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학력과 노동당원 출신 비율을 보면 고등중학교 출신은 30.8%(20명), 전문대학/단과대학 출신은 17.6%(3명), 대학 출신은 54.2%(13명)이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반 이상이 노동당원 출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2001년 1차 조사와 2007년도 3차 조사에서 각 학력별 정규직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고등중학교 21.52%(14명)에서 29.2%(19명)으로, 전문대/단과대 출신은 25.3%

Table 6.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the level of education obtained in North Korea and survey time

	High school (n=65)			F	College (n=17)			F	University (n=24)			F	F ¹⁾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28 (0.91)	3.21 (0.70)	3.25 (0.62)	—	3.00 (0.80)	3.08 (0.66)	3.25 (0.72)	—	3.10 (0.86)	3.39 (0.77)	3.33 (0.51)	—	0.796
2. Confusion in values	2.39 (0.99)	2.48 (0.84)	2.30 (0.77)	—	2.97 (1.35)	2.51 (0.79)	2.28 (1.05)	—	2.10 (0.84)	2.15 (0.80)	2.03 (0.76)	—	0.977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2.83 (1.25)	3.17 (1.07)	2.68 (1.34)	—	3.94 (1.07)	3.71 (1.23)	3.32 (1.22)	—	3.04 (1.43)	3.56 (1.15)	3.02 (1.43)	—	0.809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75 (0.90)	3.39 (0.75)	3.19 (0.82)	—	3.77 (0.83)	3.44 (0.74)	3.35 (1.03)	—	3.48 (0.86)	3.37 (0.79)	3.17 (0.82)	—	0.400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19 (0.80)	3.13 (0.89)	3.04 (0.95)	—	3.50 (1.10)	3.18 (0.80)	3.09 (0.97)	—	2.81 (0.76)	2.99 (0.71)	2.76 (0.79)	—	0.574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84 (1.13)	2.86 (0.96)	2.68 (0.98)	—	3.16 (1.13)	2.80 (0.99)	2.49 (0.99)	—	2.64 (1.01)	2.63 (0.76)	2.51 (0.71)	—	1.195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61 (1.13)	3.30 (0.79)	3.31 (0.89)	—	3.41 (0.90)	3.24 (0.83)	3.20 (1.26)	—	3.31 (0.85)	3.44 (0.80)	3.29 (0.68)	—	0.769
8. Confidant	3.32 (1.15)	3.56 (0.89)	3.37 (0.92)	—	3.18 (1.22)	3.68 (0.81)	3.59 (0.99)	—	3.58 (1.15)	3.63 (0.88)	3.08 (0.95)	—	2.298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91 (1.06)	3.57 (0.97)	3.63 (1.02)	—	3.21 (1.32)	3.53 (0.87)	3.85 (0.82)	—	3.75 (1.13)	3.58 (0.95)	3.46 (0.95)	—	1.982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61 (0.89)	3.65 (0.72)	4.04 (0.67)	—	3.62 (0.88)	3.65 (1.03)	4.00 (0.90)	—	3.81 (0.87)	3.81 (0.73)	3.98 (0.63)	—	0.373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00 (1.05)	2.89 (0.99)	2.68 (0.95)	—	3.59 (0.92)	3.18 (0.90)	2.91 (1.13)	—	3.04 (1.16)	3.04 (0.95)	2.98 (0.99)	—	0.516
12. Outlook for the future	4.32 (0.85) ^b	4.07 (0.71) ^a	4.34 (0.57) ^b	3.990*	3.88 (0.80) ^a	4.21 (0.83) ^{ab}	4.50 (0.55) ^b	6.290 [†]	4.00 (0.61)	4.15 (0.56)	4.10 (0.64)	0.358	3.248*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ime.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 < .05$, † : $p < .01$, ‡ : $p < .001$

(4명)에서 35.3%(6명)으로,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41.7%(10명)에서 50.0%(12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정규직을 가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당원 여부에 따른 의식 변화

당원여부에 따라 의식 요인점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과 조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만족도, 정부지원정책만족도,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에서 당원여부와 조사시점의 상호작용효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3.583$, $p<.05$; $F=4.057$, $p<.05$; $F=3.897$, $p<.05$).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에서의 차이이다. 비당원 출신들은 입국 초기에는 상당히 높은 북한 동조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동조 의식이 계속 낮아져 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에 반하여 당원 출신들은 비당원 출신들에 비하여 1차 조사시 북한 동조 의식이 낮았다. 즉 당

원이면서도 북한을 탈출하였을 때만큼 북한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당원과는 달리, 2차 조사시에는 북한 동조 의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의식이 더 발달한 이들 당원 출신들이 남한에 3~4년 살면서 남한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남한 사회에 비판적 의식을 더 가지게 되는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그러나 3차 조사시, 당원들의 북한 동조 의식은 다시 낮아져 비당원 출신들과 유사한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긴 세월을 살면서 결국은 남한 사회에 동화되고 남한 사회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군복무 경험에 따른 의식 변화

북한에서의 군복무 경험에 따라 의식 요인점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과 조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과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에서 군복무여부와 조사시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3.475$, $p<.05$; $F=4.200$, $p<.05$).

Table 7.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Communist Party membership and survey time

	Communist Party membership (n=36)			F	No Communist Party membership (n=70)			F	F ¹⁾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2.89 (0.99)	3.25 (0.80)	3.23 (0.57)	2.354	3.35 (0.78)	3.22 (0.66)	3.29 (0.63)	0.881	3.583*
2. Confusion in values	2.16 (0.92)	2.20 (0.96)	2.06 (0.84)	—	2.55 (1.10)	2.51 (0.74)	2.33 (0.80)	—	0.107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06 (1.54)	3.54 (1.14)	3.11 (1.50)	—	3.06 (1.20)	3.24 (1.11)	2.73 (1.26)	—	0.921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39 (0.86)	3.46 (0.84)	3.11 (0.87)	2.684	3.84 (0.86) ^b	3.36 (0.70) ^a	3.26 (0.84) ^a	15.302 [†]	4.057*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33 (0.88)	3.46 (0.84)	3.19 (1.07)	—	3.06 (0.85)	2.93 (0.78)	2.88 (0.82)	—	1.117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61 (1.05)	2.89 (0.82)	2.63 (0.86)	2.117	2.97 (1.12) ^b	2.75 (0.98) ^a	2.60 (0.96) ^a	5.812 [†]	3.897*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43 (1.21)	3.44 (0.82)	3.45 (0.89)	—	3.55 (0.94)	3.27 (0.78)	3.20 (0.92)	—	1.618
8. Confidant	3.42 (1.09)	3.57 (0.84)	3.36 (0.90)	—	3.32 (1.20)	3.61 (0.89)	3.33 (0.97)	—	0.220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68 (1.39)	3.60 (0.99)	3.71 (1.19)	—	3.80 (0.99)	3.55 (0.92)	3.59 (0.86)	—	0.419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86 (0.86)	3.75 (0.80)	4.00 (0.67)	—	3.55 (0.87)	3.65 (0.76)	4.03 (0.72)	—	1.475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21 (1.24)	3.07 (1.06)	2.85 (1.16)	—	3.05 (0.98)	2.92 (0.92)	2.75 (0.89)	—	0.058
12. Outlook for the future	4.08 (0.86)	4.19 (0.68)	4.24 (0.58)	—	4.22 (0.79)	4.06 (0.70)	4.35 (0.60)	—	1.393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ime.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 < .05$, † : $p < .01$, ‡ : $p < .001$

이 결과는 군복무 여부가 성별과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자는 54.8% (34명)가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자는 13.6% (6명)만이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남녀 차이와 군복무 여부 차이 모두에 상호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결과는 남성들의 특징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복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터놓고 이야기 할 상대가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었다가 점차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높아지고, 3차 조사에서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현재 남한에서의 직업형태와 종교에 따른 의식점수

현재의 직업형태에 따른 의식점수

현재의 직업형태에 따라 현재의 의식 요인점수가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만족도에서만 직업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3.465$,

$p < .05$), 정규직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이 중간 정도였고, 계약직과 직업 없음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에서는 직업형태에 따른 의식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남한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인식, 자신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남한에서 지낸 기간이 7년 정도로 아직 충분히 길지 않고, 정규직을 꾸준히 가져온 사람들과 최근에 새로 정규직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응답 결과가 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할지라도,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혼란은 가장 적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단결에 대한 의식은 가장 높았으며,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장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어 직장을 정규직으로 갖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가장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는데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주었다.

현재의 종교유무에 따른 의식점수

현재의 종교유무에 따라 현재의 의식 요인점수가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더 높은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 의식($F=6.360$, $p<.05$), 높은 주거만족도($F=4.031$, $p<.05$), 긍정적인 미래

Table 8.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and survey tim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n=40)			F	No military service (n=66)			F	F ¹⁾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12 (0.91)	3.18 (0.74)	3.25 (0.69)	—	3.24 (0.87)	3.25 (0.70)	3.28 (0.56)	—	0.091
2. Confusion in values	2.23 (1.13)	2.31 (0.91)	2.12 (0.94)	—	2.53 (0.99)	2.47 (0.77)	2.31 (0.73)	—	0.819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28 (1.51)	3.36 (1.18)	3.19 (1.47)	—	2.92 (1.18)	3.33 (1.10)	2.66 (1.25)	—	1.523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55 (0.93)	3.35 (0.76)	3.09 (0.84)	—	3.77 (0.84)	3.42 (0.75)	3.28 (0.85)	—	0.361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29 (0.89)	3.26 (0.84)	3.18 (0.96)	—	3.07 (0.84)	3.01 (0.83)	2.87 (0.88)	—	0.279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70 (1.03)	2.90 (0.86)	2.60 (0.86)	—	2.94 (1.15)	2.74 (0.96)	2.62 (0.97)	—	2.382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70 (1.12)	3.39 (0.67)	3.39 (0.93)	—	3.39 (0.97)	3.28 (0.86)	3.23 (0.90)	—	0.517
8. Confidant	3.58 (1.07)	3.49 (0.87)	3.28 (0.90)	1.549	3.22 (1.20) ^a	3.66 (0.86) ^b	3.37 (0.97) ^a	6.012 [†]	3.475*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93 (1.28)	3.60 (0.96)	3.59 (1.15)	—	3.66 (1.03)	3.55 (0.94)	3.65 (0.86)	—	0.801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94 (0.74) ^b	3.64 (0.78) ^a	4.04 (0.69) ^b	4.452*	3.48 (0.91) ^a	3.71 (0.77) ^a	4.01 (0.71) ^b	8.963 [‡]	4.200*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3.30 (1.08)	3.15 (0.98)	2.79 (1.06)	—	2.98 (1.05)	2.86 (0.95)	2.78 (0.95)	—	0.858
12. Outlook for the future	4.21 (0.76)	4.25 (0.57)	4.36 (0.51)	—	4.15 (0.85)	4.02 (0.75)	4.28 (0.63)	—	0.591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ime.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05$, † : $p<.01$, ‡ : $p<.001$

Table 9.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type of current occupation

	Permanent (n=37)	Temporary/Contract (n=19)	Self-employed (n=16)	Unemployment (n=34)	F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51 (0.47) ^b	3.08 (0.67) ^a	3.23 (0.67) ^{ab}	3.13 (0.61) ^a	3.465*
2. Confusion in values	2.07 (0.76)	2.38 (0.72)	2.22 (0.97)	2.36 (0.84)	0.980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18 (1.25)	2.32 (1.38)	2.50 (1.44)	2.99 (1.34)	2.246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35 (0.85)	3.06 (0.87)	3.25 (0.98)	3.12 (0.77)	0.666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2.99 (0.85)	3.33 (1.01)	2.70 (0.87)	2.94 (0.94)	1.388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65 (0.85)	2.42 (1.21)	2.73 (0.85)	2.62 (0.89)	0.369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52 (0.88)	2.95 (0.88)	3.38 (0.78)	3.19 (0.98)	1.939
8. Confidant	3.30 (0.98)	3.25 (1.07)	3.19 (0.66)	3.50 (0.95)	0.543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64 (1.05)	3.50 (1.21)	3.44 (1.06)	3.78 (0.69)	0.578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4.09 (0.64)	3.97 (0.72)	4.06 (0.63)	3.94 (0.80)	0.325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2.82 (1.01)	2.67 (0.84)	2.56 (1.14)	2.91 (0.98)	0.556
12. Outlook for the future	4.38 (0.66)	4.17 (0.64)	4.28 (0.52)	4.32 (0.52)	0.531

a, b, c :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sharing the same subscripts are not significant (Tested by Fisher LSD test). * : $p<.05$, † : $p<.01$, ‡ : $p<.001$

Table 10. Difference in the mean perception factor score by faith

	Religion (n=60)	No religion (n=46)	F
1. Satisfaction level with economic condition	3.34 (0.64)	3.17 (0.56)	2.030
2. Confusion in values	2.18 (0.76)	2.32 (0.89)	0.731
3. Solidar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3.14 (1.29)	2.49 (1.36)	6.360*
4. Satisfaction level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3.23 (0.88)	3.18 (0.81)	0.072
5. Difficulty level in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3.07 (0.80)	2.88 (1.05)	1.033
6. Psychological sympathy with North Korea	2.59 (0.89)	2.63 (0.98)	0.039
7. Satisfaction level wit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3.30 (0.97)	3.28 (0.84)	0.019
8. Confidant	3.46 (0.89)	3.18 (0.99)	2.206
9. Satisfaction level with residence	3.79 (0.88)	3.41 (1.06)	4.031*
10.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language	4.09 (0.73)	3.92 (0.65)	1.502
11. South Koreans'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2.92 (0.86)	2.61 (1.12)	2.673
12. Outlook for the future	4.42 (0.51)	4.16 (0.66)	5.254*

* : $p < .05$, † : $p < .01$, ‡ : $p < .001$

에 대한 전망($F=5.254$, $p < .05$)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살고 있는 집과 방에 대한 만족도가 종교가 있는 집단(3.76, $SD=0.935$)이 없는 집단(3.13, $SD=1.222$) 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단결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교회에서의 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의미 있고 긍정적인 만남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거의 없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도 함께 하여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항목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힘든 것은 남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다”라는 응답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3.34, $SD=1.183$)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2.83, $SD=0.988$)에 비하여 더 높게 나온 적이 있다($t=2.2080$, $df=103$, $p < .05$).

즉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남한 사람들과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하여 더 비판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 밝게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외롭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등에 대한 걱정 등으로 몹시 불안해하는 일반적 북한이탈주민 상황 속에서 신앙이 이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만들고, 신앙이 주는 궁극적인 희망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찰

결과에 대한 고찰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양상이 가지는 큰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적응에 성공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고, 취업이 힘든 것은 남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의식도 줄어들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도 줄어들었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지 6~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한 사회는 스스로 노력함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의식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식도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또 남한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의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5년 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남한에 살게 해 준 것에 대하여 보람과 자녀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만족도, 현재 이루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항목의 응답도 통계적으로 꾸준히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남한정부나 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내용에 대하여는 불만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 중 3차 조사에 걸쳐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온 내용들은 거의 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관이 있었다. 특히 의료지원, 취업지원, 정착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한번 주어졌던 영구임대 주택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은 자신들이나 자녀들이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료지원 문제이다.

이들 대부분이 입국 초기에는 의료보호 대상자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었는데,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병 치료시 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더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의 의료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 기간의 연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강화 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지원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좀 더 실용적인 취업 지원 방안은 정부와 함께 관련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개념의 직장 설립,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훈련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적극적 시행 및 정부의 지원이 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해가며, 북한에 대한 심정적 동조 의식이나 소속감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된 의식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큰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에 열심히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들을 좀 더 집단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즉 스스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을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아직 불안

정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중 누가 북한의 위장 간첩인지 모른다는 의심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나, 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태도에 있다.

셋째,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일을 하여 본 경험이 부족하여, 단체가 형성되면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선불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다가 남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자조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스스로 먼저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나중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런데 서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단체 형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조 집단이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집단을 대표하고, 남한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하는 지도층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향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체 형성에 더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긍정적 만남의 경험 축적이 결국 이들의 성숙한 집단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 단체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 당원 여부, 군복무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의식과 의식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하나원 교육에서나 그 이후 남한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들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전망과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살아 본 경험이 있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는 통일에 대한 예상과 전망은 점차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이해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인 응답이 전혀 호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결과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남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통일과 정과 통일 이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가장 큰 제한점은 분석 대상이 된 집단의 편향 가능성이다. 1차 조사에 응답하였던 200명 중 53%인 106명만이 3차 조사까지를 완성하였다. 그에 따라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의 의식변화는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3차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결과를 내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 결과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 등으로 볼 때 3차 조사 대상자 106명은 1차 조사 대상자 200명과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형은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패널 연구 결과 이상의 실증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토론 내용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3년 주기로 3차례 조사한 의식과 만족도의 변화를 본 것이다. 3차례 모두 응답한 총 106명의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주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 적응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건전하고 성숙한 자조 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징에 맞는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남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통일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 · 북한난민 · 북한 · 한반도 통일 · 적응 · 의식 · 생활 만족도.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KPI-08-001-B0814001).

REFERENCES

- 1) Lin KM, Masuda M, Tazuma L.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Part III. Case studies in clinic and field: adaptive and maladaptive. *Psychiatr J Univ Ott* 1982;7:173-183.
- 2) Lee SR.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1997.
- 3) Lee JH. Development of program of psychological adapt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ung-Gok Nonchong* 1997;28:739-789.
- 4) Lee JH, Kim YB, Kim KU. Study on the cultural conflict solu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Korea: Cultural Policy Institute;1998.
- 5) Cho YA. The ego defense mechanis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comparision of South Koreans and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Seou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3.
- 6) Jeon WT. A study on defectors social adaptation and self-identity. *Korean Unification Studies* 1997;1:109-167.
- 7) Jeon WT, Yoon DY, Um JS. The way of thinking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93-104.
- 8) Jeon WT, Yu SE, Cho YA, Hong C, Um JS, Seo SW. 3-year follow up study of the way of thinking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 45:252-268.